수 송
Transportation
Transports

27

수송의 기본목적은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임원단, IOC·IF·NOC 등 귀빈 및 보도진들에게 입국하여 출국할 때까지 최적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대회의 성공적 임무수행에 기여하는 데 있다.

수송서비스는 수송대상과 수송장소별로 기준에 따라 제공되었으며 셔틀버스 운행, 전용차 할당, 요구차량 배차, 단체수송제공, 렌터카 알선 등으로 나눠 수송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대회기간 3,55명의 인력과 2,401대의 차량이 투입되어 올림픽패밀리 3만 6044명과 대회 핵심 요원 및 군지원 인력 6,000명을 수송하였다.

경기 및 행사관람객 270만명과 올림픽관련 관광객 24만명 등 294만명에 대해 서울시 및 교통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버스노선 연장운행, 지하철 운행간격 단축 등 교통수단의 증폭운행으로 수송업무를 운용하였다.

대회중 중추절이 겹쳐 교통혼잡이 예상되었으나, 자가용 차량의 격번제 운행과 시차출근제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통소통은 원활한 편이었다.

이밖에 마필특별수송과 각종 경기용기구, 방송기자재 등 대회관련 특수물자가 사전 홍보 및 안내로 일정에 마추어 차질없이 운송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하였다.

제27장 수송

1. 기본사항

1.1. 기본방침

수송의 목표는 대회에 참가한 올림픽패밀리에게 입국하여 출국할 때까지 최적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조직위는 서울올림픽의 수송업무를 ① 선수·임원단 수송 ② 심판진 수송 ③ 귀빈수송 ④ 인쇄매체 및 방송매체 보도진 수송 ⑤대회참가자 화물수송 ⑥ 경기장과 연습장의 교통소통 및 주차관리 ⑦ 수송안내서 및 표지물 제작관리로 나눠 추진하였다.

조직위는 선수·임원과 보도진 및 심판진 수송에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대량 정기수송을 전담시킨 한편 신분에 따른 서비스기준을 설정, 적절한 수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조직위가 설정한 수송체계의 기본운영방침은 ①NOC별 선수단 규모에 따른 전용차 할당 운행 ② 귀빈에 대한 신분별 전용차 할당 운행 ③ 선수단·귀빈·심판진·보도진 전용셔틀버스 운행 ④ 축구·배구·농구·핸드볼 등 구기종목에 대하여 각 팀별 전용셔틀버스 할당 운행 ⑤ 요구에 따라 대여차량·전세버스 유료 알선 ⑥교통부·서울시 경찰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기본운영방침이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수송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조직위의 수송대상 인원은 선수·임원 1만3304명, 심판진 2,000명, 귀빈 5,000명, 보도진 1만 5740명과 화물 6,800톤이었다.

올림픽관련 수송대상 인원에 대한 신분별 수송서비스기준을 보면 선수·임원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과 함께 선수단 규모에 따라 NOC 별 전용차량이 할당되었다.

또한 이들의 입출국 수송을 위하여 공항 - 선수촌간 요구차량이 배차 운행되었고 선수단장에게는 전용차가 할당되었다.

심판진에게 입출국시 숙소 - 공항간 버스가 배차 운행되었고 경기장 출입은 셔틀버스로 하였으며 행사장에는 단체수송이 제공되었다.

귀빈에게는 신분에 따라 개인 및 그룹 전용차량을 할당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

보도진에게 셔틀버스 운행 및 버스 단체수송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유료로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알선하였다.

화물수송은 전문용역업체로 대한통운(주)이 지정되어 지참·별송·특수화물로 구분 운송하였다.

관람객과 외국관광객의 수송업무는 교통부 및 서울시가 주관하였다.

조직위는 교통부 관광운수국, 서울시 올림픽준비단, 치안본부 올림픽기획단, 서울시 경찰국,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광버스운영회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수송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수송기간은 1988년 9월3일부터 10월 5일까지 33일간으로 정하고 운영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본부호텔은 9월1일부터, 기자촌은 9월2일부터 수송업무가 시작되었고 선수촌은 10월6일까지 수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수송장소는 경기장 34개소, 연습경기장 72개소, 행사장 7개소, 호텔 30개소 등 153개소였다.

1.2.추진경위

대회 수송계획은 1982년 정부지원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교통관광 실무분과 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1983년 2월 조직위 기술국내에 수송과가 발족, 수송계획이 입안·추진되었으나 서울아시아대회에 대한 준비가 주업무였다.

1985년 3월 서울아시아대회 셔틀버스 용역업체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광버스운영회가 지정되었고, 동년 10월 대한통운(주)을 대회 운송용역업체로 지정, 서울아시아대회 운영준비를 갖추었다.

1986년 2월 대회 셔틀버스 노선이 확정되었고, 3월에 선수·임원 전용차 할당기준, 5월 귀빈 전용차량 할당기준이 확정되면서 운영세부계획이 작성되었다. 동년 7월과 8월 2개월간 대회 수송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8월 1일부터 대회운영본부조직으로 전환,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아시아대회기간인 9월6일부터 10월 8일까지 운영요원 2,249명과 차량 1,015대를 투입, 연 12만 4000명을 수송하였다. 서울아시아대회를 끝내고 올림픽 운영체제로 전환, 조직정비에 나선 조직위는 1986년 12월 수송국을 조정과와 수송 1. 2과로 확대 개편하고 업무를 분담하였다.

1987년 1월 서울올림픽대회 승용차 및 운전요원 확보방안과 방침이 결정되고, 동년 3월 국방부지원 물자관련회의, 동년 5월 정부지원 실무위원회협의 등을 거쳐 승용차와 운전요원을 360개 행정부 및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기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확정하였다.

동년 6월 조직위는 전국관광버스 사업조합 서울시지부를 셔틀버스 운영업체로 지정하였으며 7월에 수송본부를 설치, 종합적인 운영체제를 갖춰 나갔다.

1987년 8월 서울아시아대회의 경험을 토대로 셔틀버스 운행노선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동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쳐 셔틀버스 운행 실무협의를 갖고 수송대상별·업체별 차량배정계획을 세웠다.

198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대회운영 준비단계였다.

1988년 1월 교통부, 치안본부, 서울시, 8개 운수단체 등 21개 기관 실무책임자가 참석한 유관기관회의가 열려 중추절 수송대책, 대회 교통량 감축대책 등을 협의하였다.

동년 2월부터 5월 사이 6회에 걸쳐 계속된 정부지원 실무위원회에서는 대회 교통량 감축방안으로 자가용 격일제 운행, 카풀제, 휴가기간 조정 등 대책이 수립되었다.

1988년 7월과 8월은 현장전개단계로 이 기간에 인력과 물자를 단계별로 배치하고 차량을 점검·인수·배치하였으며 3차에 걸쳐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8월 1일부터 수송운영단 8개 모터풀이 현장전개되었으며, 8월29일 수송운영단이 발대식을 가졌다.

1988년 9월부터 대회운영에 들어갔으며, 10월 대회가 끝난 후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연계지원에 들어갔다.

1.3. 조직 및 인력

수송업무는 수송국 수송조정과· 수송1·2과 총 31명이 업무를 분담 관장하였다. 업무분담내용을 보면

수송조정과는 ① 수송업무 기획·조정 및 총괄 ② 대회참가자 화물운송 ③ 대회 핵심운영요원 수송 ④ 수송인력·물자 및 차량 확보·배치업무이고, 수송 1과는 ⑤ 선수·임원 수송 ⑥ 심판진 수송 ⑦ 경기장 및 연습장 주차장 확보·관리업무이며, 수송 2과는 ⑧ 귀빈 수송 ⑨ 보도진 수송업무 등이었다.

대회운영체제로 전환되면서 대회 수송업무는 수송운영단장과 종목별 경기본부장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었다. 수송운용단은 수송조정차장·수송 1차장·수송 2차장 아래 종합수송부·선수촌·심판진·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본부호텔·기자촌·MPC·IBC·공항수송부와 총무부 등 모두 11개부로 구성되었다.

종목별 경기본부장은 수송담당관을 지휘, 당해 종목의 수송임무를 수행하였다. 업무분담은 수송조정차장이 종합수송부와 총무부 및 공항수송부를, 수송1차장이 선수촌·심판진·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 수송부를, 수송2차장이 본부호텔·기자촌·MPC·IBC수송부를 지휘하여 각기 수송업무를 수행하였다.

1

2

1. 수송운영단 발단식이 거행된 후 운영요원 3,723명이 현장배치되었다.

2.순찰오토바이가 순찰 및 경호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7장 수송

3

수송운영단의 운영요원은 모두 3,728명이었다. 이를 확보방법별로 보면 조직위 직원 31명, 자원봉사자 1,995명, 지원요원 1,691명, 단기고용 6명이었으며, 이밖에 용역요원 2,743명이 운영을 도왔다.

1.4. 수송전문위원회 구성.운영

1984년 12월 수송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서울아시아대회를 치른 후 1987년 4월 올림픽회관2층 조직위 상황실에서 서울아시아대회 후 처음으로 1987년도 제1차 수송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송전문위원 1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교통부 육운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날의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렌터카 대책, 셔틀버스 노선문제가 협의되었다.

동년 11월 2차 회의에서는 ① 렌터카 대책 ② 휘장 승용차 차종 조정 문제, ③ 대회 교통소통대책 ④ 올림픽패밀리 지하철 무료이용 ⑤ 교통언어자원봉사대 운영 등에 대한 토의와 협의가 있었다.

수송전문위원회는 1·2소위원회를 구성, 올림픽 수송과 교통소통문제 전반에 관하여 연구·토의 자문역할을 하였다.

수송전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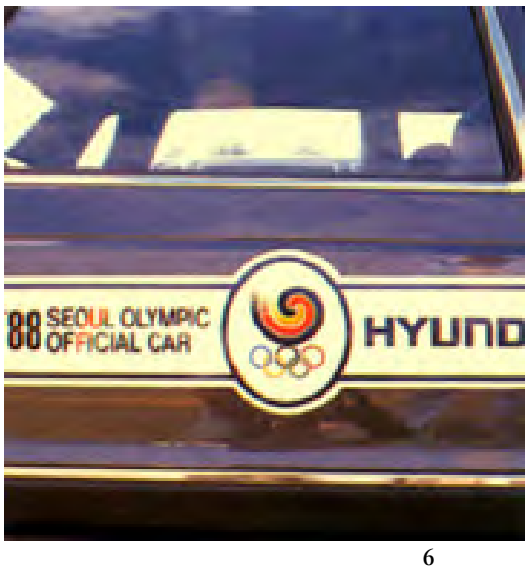
수송전문위원

김광득 교통부 육운국장
장한민 내무부 교통지도부장
박원봉 국방부 군수총괄과장
이원택 서울시 교통국장
방동환 서울시 경찰국 교통과장
신부용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김길현 국제공항관리공단 이사
도재용 서울시 교통연수원 원장
고준병 도로교통안전협회 총무이사
이시영 대한승마협회 승마훈련원장
박인봉 대한통운(주)전무이사
맹만섭 전국관광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지부장
이광열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황의두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변 욱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콜택시협의회 회장
이차갑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양외석 전국자동차 대여사업조합 회장
홍두표 현대자동차(주) 상무

수송운영단 조직

4

5



6

3. 공항 - 올림픽공원코스간 올림픽패밀리를 위한 셔틀버스 정류장이 설치 운영되었다.

4. 패밀리타운 승차장에서 셔틀버스에 오르고 있는 패밀리 아파트 숙박자.

5. 서울대학교 탁구경기장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셔틀버스에 오르고 있다.

6. 휘장사업으로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430대의 대회 고악차량.

제27장 수송

2. 수송장비 및 인력확보

2.1. 차량확보 및 운영

□ 차량소요

수송장비 사용기간을 대회 전후 33일간으로 보고 차량확보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조직위는 소요장비 추정작업에 앞서 먼저 차종별 임무와 용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차종별 용도조사에서 승용차는 귀빈·특별분야 선수·국제회의 참가자의 수송용으로, 버스 및 미니버스는 셔틀버스나 또는 요구시 제공되는 단체 수송용으로, 트럭은 올림픽 공식참가자의 화물 및 행사용 화물 수송에 활용하며, 경기용기구와 마필·카누·조정·요트·총기류 등의 수송을 위한 특수차량과 업무연락용 오토바이도 확보키로 하였다.

차량소요조사는 1,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1987년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조직위 각 실·국으로부터 수송 예상소요를 접수, 집계 분석하였다.

2차 소요조사는 1987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조직위 관련부서로부터 1차 소요 파악내용과 비교 검토토록 하여 접수된 조정내용이었다.

2차 소요조사에서 나온 소요차량은 버스 550대, 미니버스 974대, 승용차 1,396대, 화물차 100대이며, 특수차로 트레일러 30대, 리프트 카 12대, 견인차 5대 등 총 3,067대로 추정되었다.

□ 차량확보

차량조달은 국내 또는 국제 자동차생산회사의 후원과 협조로 일부 조달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차량지원, 대기업체의 협조, 군차량동원, 운수전문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등으로 소요차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실제 서울올림픽대회에 투입된 차량은 총 2,401대로 버스 737대, 미니버스 183대, 승용차 1,319대, 화물차 69대, 특수차 93대였다.

버스는 군지원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국관광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지부와 임차계약을 체결, 일괄 확보하여 각 모터풀별로 배치 운영하였다.

1987년 6월 업체 선정, 동년 8월 동 사업조합으로부터 버스 43개 업체와 미니버스 42개 업체별 참여통보서를 접수, 동년 12월까지 실무협의를 가졌다.

1988년 2월 수송대상별.업체별 차량배정계획이 확정되었고 동년 8월 24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확보내역은 셔틀버스 용역업체인 서울시 버스사업조합 관광버스 운영회로부터 버스 642대와 미니버스 128대를 임차하였고, 국방부로부터 버스 95대와 미니버스 55대를 지원받았다.

조직위는 교통부·국방부·서울시 등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1987년 2월 28일부터 동년 8월30일까지 승용차 1,319대를 확보 완료하였다.

조직위는 1987년 1월 승용차확보계획을 수립, 동 계획에 따라 추진하였다.

조직위는 동 계획에서 귀빈 전용 835대, 선수단 전용 302대, 입국 수송 30대, 예비 40대, 업무용 123대, 총 1,330대로 소요추정하였고 1987년 7월 소요차량의 확보를 완료한 후 점검과 배차에 들어갔다.

확보내역은 현대자동차 휘장확보 430대, 기관지원 149대, 택시회사 602대, 국방부지원 123대, 기타 15대, 총 1,319대였다.

화물차 69대는 용역회사인 대한통운(주)이 확보하였으며 특수차량 93대는 군지원으로 확보되었고 이밖에 앰블런스는 지원병원과 일부 군에서 지원되었다.

□ 차량 배치 및 관리

차량 배치 및 관리는 ① 전용차. 셔틀버스·요구차량별로 배차체계를 구성하며 ② 주요장소별 수송부와 모터풀의 연계설치 운영 ③ 모터풀별 소요차량의 배치관리 ④ 용도별 차량배차체계 구성 ⑤ 수송전산화를 통한 배차관리 ⑥ 청소년캠프 수송·개/폐회식 수송·성화봉송 수송지원 등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조직위는 잠실 한강고수부지 3만 471㎡의 종합모터풀 등 8개 장소에 15만 8017㎡의 모터풀을 설치하였으며 기타 필요시설을 하여 관리하였다.

배차관리를 위해 무선호출기워키토키·차량전화·가입전화·구내전화·직통전화·인터폰 및 방송장치가 소요되었다.

통신방송장비는 기술국과 협의, 설치 완료하였다.

□ 급유·정비·세차

차량급유는 각 수송부별로 지정급유업체를 선정, 모터풀별로 배정 운영하였고 급유티켓을 발급 운영하였다.

급유티켓은 차종별 급유공급기준에 따라 배부되었으며 급유공급기준은 차량승차인원 완전탑승 및 카 에어컨 작동운행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대금은 1개월 단위로 각 모터풀이 보낸 유류구입현황표를 근거로 물자국에 대금지불을 의뢰, 정산하였다.

1988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자동차 연료는 1억 6005만 355원, 53만 3384리터나 되었다.

정비업무는 모터풀내 유자격 정비사가 일일점검하도록 하고, 간단한 부품 교환은 부품을 구입하여 모터풀에서 실시하며, 중·대정비는 모터풀 인근 1·2급 정비사업체를 지정, 의뢰하였다.

지정정비업체 8개사는 차량점검용 공구 및 장비를 무상임차하고, 견인차와 정비요원을 지원하였다.

차량세차는 지정업체를 지정, 차종별 세차기준에 의거, 정기 세차티켓을 발부 운영하였다.

2.2. 운전요원 확보

□ 확보

조직위는 1987년 1월 운전요원을 정부 공공단체로부터의 파견 및 단기고용. 자원봉사단·용역요원·군지원요원으로 확보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운전요원 전원의 일시확보가 어려워 단계적인 확보계획을 세웠다.

승용차 운전요원은 540개 행정부, 기관, 업체, 택시조합으로부터 무상지원방침이 확정되었으며 1987년 2월부터 확보에 착수하였다.

조직위는 동년 8월까지 운전요원의 명단을 접수, 전산입력하고 관리하였다. 조직위는 동년 6월부터 수송자원봉사요원을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9월 15일부터 승용차 운전요원에 대한 어학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회중 실제 투입된 운전요원은 3,067명으로 버스 1,000명, 미니버스 396명, 승용차 1,471명, 화물차 69명, 특수차량 131명이었다.

□ 교육

조직위는 확보한 운전요원을 철저히 교육하여 훌륭한 대회운영요원으로 양성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교육은 기본소양 함양과 함께 수송업무 처리능력 배양, 운영요원간의 일체감 조성 및 협동심 고취에 두었다.

조직위는 운전요원의 선발과정에서부터 언어·지식·품행을 갖춘 우수인력을 지정하는 데 노력하였고, 지정 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소양교육·어학교육·직무교육·현장적응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소양교육은 인력국 주관으로, 기타 교육은 수송국 주관으로 반복 실시되었다.

1987년 11월 28일 승용차 운전요원 1,300명에게 인력국 주관 소양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들에게 어학교육이 단계별로 실시되었다.

이밖에 수송운영단 인력에 일괄적으로 서울올림픽 수송계획에 대한 제1단계 기본교육과 제2단계 보충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988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직무교육이, 1988년 5월부터 8월까지 현장적응교육이 실시되었다.

7

8

9

10

7. 귀빈에게는 전용차량이 배정되어 수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8. 행사장 수송차량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9. 올림픽패밀리 화물인 오토바이를 특수차량에 적재운반하고 있다.

10. 특수제작된 12대의 마필 수송차량이 올림픽기간 221필의 경기마를 수송하였다.

제27장 수송

3. 종합수송부 운영

3.1. 종합수송부 구성

서울올림픽대회 수송업무를 총괄하며 수송인력·차량 및 물자를 확보, 각 장소별 모터풀에 배치 관리하는 종합수송부가 구성되어 수송운영단의 수송조정차장 지휘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종합수송부의 업무는 ① 종합모터풀의 설치운영 ② 수송차량 및 기사의 확보 배치 ③ 업무용 차량관리 ④ 대회 핵심운영요원 수송 ⑤ 화물수송 ⑥ 렌터카의 운영 등 수송운영단의 핵심역할로 대회 전 수송조정과의 업무를 담당한 현장전개 부서였다.

종합수송부는 사업별로 기본방침을 설정,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종합수송부는 모터풀·화물수송·특별 수송·군지원·행정·스티커담당관 등 6개 담당관을 두고 담당관별 업무를 운영하였다.

종합수송부 인력은 총 1,976명으로 확보방법별로는 조직위 직원 3명, 지원요원 603명, 자원봉사자 169명, 단기고용 1명과 용역 1,200명이었다.

이들에게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1987년10월24일,11월7일 2차례에 걸쳐 대회운영요원으로서의 기본소양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은 슬라이드 교육과 위원장 특강이었다.

1988년3월11일과 3월28일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수송운영단 주관 직무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은 대회 수송개요, 안전교육, 운영요원 업무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1988년 6월 25일, 7월9일,7월23일 3차에 걸쳐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종합모터풀에서 현장직무교육이 실시되었고, 운전요원에게는 동년 7월6, 7일과 7월 13, 14일 2차에 걸쳐 현장적응교육이 실시되었다.교육내용은 종합수송부 세부운영계획, 운영요원 근무요령, 선수촌 현장답사 등이었다.

3.2. 종합모터풀

□ 업무범위

종합모터풀은 대회 공식행사 차량을 관리 운영하는 조직으로 차량의 배차와 정비·세차·급유 및 운전요원 관리가 기본임무였다.

종합모터풀은 서울종합운동장 북쪽 한강고수부지에 위치, 선수촌 및 올림픽공원과 6.5km 13분 거리이며, 종합운동장 0.5km, MPC 1.5km의 지근거리였다. 또한 김포공항과도 34.5km인 30분 이내 거리였다.

이곳은 서울아시아대회 때 종합모터풀로 이용된 곳으로 고수부지 1만 8000㎡에 주차장 1만 5000㎡, 건물은 지상 2층 1,355㎡ 중 일부인 628㎡를 활용, 사무실、기사대기실、군지원대기실、물자 창고를 배치하였다.

종합모터풀은 종합수송부의 직할조직으로 모터풀담당관이 관리하였으며 운영、주차、관리、급유、정비、세차、사고처리반으로 구성되었다.

□ 차량 및 운전요원 확보 배치

1988년 7월 31일까지 확보된 차량은 종합모터풀에 단계적으로 집결, 점검을 끝내고 각 모터풀에 배치되었다.

점검은 1988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행정부 및 기업체 지원차량 149대가 1988년 8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종합모터풀에서 점검 입고되었으며, 휘장사업 430대는 8월 22일부터 25일 사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인계시 점검되었고, 택시회사 지원 60대는 8월 25일부터 30일 사이 택시조합으로부터 인계시 일괄 점검되었으며, BMW·BENZ 15대는 9월 8.9일 인계시 점검되었다.

종합수송부는 8월 20일부터 군지원 123대를 1차 수송에 투입하였으며, 8월 25일에는 미수교국에 휘장사업으로 확보된 430대를 배차하였다. 9월 1일 초기 수송단계에 택시회사 지원 등 65대를, 중기 수송단계에 기관·업체 지원 99대를, 최대 수송시기인 9월 13일부터 BMW·BENZ 15대를 동원, 확보차량의 전체가동에 들어갔다.

이들 차량은 용도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모터풀에 배치하였는데, 초기에는 전 가동차량을 종합모터풀에 입고시킨 후 기본배치계획에 따라 해당 기사와 연계시켜 각 모터풀별 소요에 맞춰 신축성있게 배치 운영하였다.

초기 입국 수송단계에는 귀빈 수송용 차량을 공항에 상주 배치했다가 점차 이동 배치하였다.

버스 및 미니버스는 모터풀별로 전담업체를 사전에 지정하여 각 해당 모터풀 주관하에 일일정산제로 운영하였으며, 화물차는 용역회사를 지정 집중관리하고, 승용차는 휘장·기관·업체·택시회사 지원 등 확보원별로 종합수송부에서 일괄 확보하여 모터풀별로 배치하였다.

3.3. 종합수송부 운영

□ 렌터카 운영

올림픽패밀리에게 원활한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부족차량 및 운전기사 확보 운영 등 주요문제점을 교통부,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의 추진하였다.

조직위는 1987년 3월 렌터카 소요분석 및 업계실태 파악결과 차량 306대, 운전기사 600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렌터카 지원을 교통부에 요청하였다.

조직위는 1987년 11월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지정업체로 선정하고 모두 1,218대를 사전계약에 의하여 확보하였다.

운전기사는 확보계약된 709명을 일정에 따라 4차례 교육을 실시, 배치하였다.

□ 차량스티커 발급

수송운영단은 등록카드를 소지한 올림픽패밀리나 운영요원에게 카테고리별·용도별로 대회 차량스티커를 발급, 차량통행을 통제하였다.

차량스티커 발급 기본방침은 주차스티커의 소요파악 후 장소별 주차능력을 고려, 차량스티커를 발급하며 주차 우선순위에 따라 차량스티커를 발급했는데 해당 주차장소는 선도착 우선순위 원칙이 고수되었다.

대회 차량 이외에 행선지 차량스티커와 개·폐회식 및 행사용 일일스티커가 별도로 제작 운영되었다.

대회 차량스티커는 조직위 각 부서별 발급신청에 의하여 주차능력과 수송대상별 주차 우선순위에 다라 사전발급되었다.

조직위는 7가지로 스티커를 분류 운영하였는데 종류는 카테고리 및 용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11

12

13

차량스티커 발급표

차 량	색 상	카테고리(대상)	용 도	발급량
공식행사 차량스티커 (S1)	적 색	귀빈 전용차량	전지역 주차	2,984
		선수·임원단 전용차량		
		수송대상별 셔틀버스		
공식행사 차량스티커 (S2)	청 색	국내초청인사(G·GV·아타셰)	전지역 주차 (선수촌 제외)	1,024
주차증(S3)	노 랑 색	인쇄매체 보도진(E)	전지역 주차(선수촌 제외) 해당지역 주차 선수촌 출입시는 주차표기란에 별도 표기	4,540
		방송매체 보도진(RT)		
		IOC·IF·NOC·B·C·GV 카테고리의 개별확보 차량		
주차증(S4)	녹 색	기술임원 심판(D)	해당지역 주차 전지역 차량주차	4,660
		차기대회 유치도시 대표단·참관단(O)		
		스폰서·서플라이어·라이센스대표(Sp)		
		개·폐회식 등 행사출연요원 등(SD)		
		경기단체·정부부처·군지원요원(SA)		
주차증(S5)	하 늘 색	청소차량 등(SE)	전지역 차량통행 및 일시정차 해당지역 차량통행 및 일시정차 선수촌 출입시는 정차표기란에 별도 표기	7,319
		입장권 판매·광고 등 용역업체요원(SC)		
		환전소·임시우체국요원(KP)		
		군·경·소방·안전요원(KS)		
임시차량스티커(S6)	하 늘 색 (사선 : 적색)	차량스티커 없이 특정장소의 일시적 출입이 필요한 등록 카드 소지자	해당지역 차량통행 및 일시정차	1,840
		특정장소의 일시적 출입이 필요한 기존 일부 차량스티커 소지자		
업무용 차량(S7)	분 홍 색	업무용 승용차	전지역 차량통행 및 주차 해당지역 차량통행 및 일시주차 선수촌 출입시는 주차표기란에 별도 표기	1,649
		운영요원 수송버스·미니버스		
		조직위 직원(SO)		
		일부 안전요원(KS) 및 운영요원(SV)		

11. 대회 공식차량에는 전면 본넷에 서울올림픽 공식휘장이 그려졌다.

12. 잠실 한강고수부지 3만 471㎡의 종합모터풀에 대회 공식차량과 순찰오토바이가 도열해있다.

13. 의전등급과 국제관례에 따라 BENZ·BMW 고급승용차가 배정되었다.

제27장 수송

14

4. 선수단 수송

4.1. 선수촌 수송부 구성

서울올림픽 참가선수 9,417명과 임원 3,887명이 수송대상이었다.

조직위는 선수·임원단의 효율적인 수송을 위하여 선수촌 수송부와 전용모터풀을 설치 운영하였다.

선수촌 수송부에서 제공하는 수송서비스는 ① 선수촌과 경기장간 셔틀버스 운행 ② 선수촌과 연습장간 배차 및 셔틀버스 운행 ③ 구기종목 전용버스 배차 운행 ④ 참가규모에 따른 국가별 전용차 할당 ⑤ NOC화물수송차량 운행 ⑥ 선수촌내 셔틀버스 운행 ⑦선수촌 전용주차장 확보 운영 ⑧ 선수촌내 종목별 터미널 설치 운영 ⑨ 차량스티커 발급 및 운영 등이다.

선수촌옆 보성고등학교 23개 교실을 선수촌 수송부 건물로 확보하고 이 가운데 6개 교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15개 교실을 기사대기실로 이용하였다.

선수촌내 도로상에 임시건물 208㎡를 가설, 사무실 50㎡, 창고 17㎡, 동승안내대기실 50㎡, 기사대기실 93㎡를 할당 이용하는 한편 천막 7개, 부스 9개와 간이화장실 37대, 무료음료대 2대, 조명등 9개, 표지판 159개를 설치하였다.

선수촌 수송부에는 통신장비와 일반장비가 배치되었다. 통신장비로는 워키토키 20대, 가입전화 8대, 구내전화 14대, 직통전화 6대, 차량전화 1대, 인터폰 35대, 무선호출기 2대가 설치되었으며 일반사무실용 물자가 조직위 물자국에 의하여 조달되었다.

선수촌 수송부는 수송부장 아래 7담당관 17개 반장이 운영핵심요원이었다.

선수촌 수송부에는 영어 72명, 프랑스어 4명의 통역요원이 NOC주차장과 28번 도로 수송데스크 등에 배치되어 언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2명은 동승통역을 맡았다. 확보된 인력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훈련이 실시되었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은 선수촌에서 1차2회 반장급 이상 핵심요원을 대상으로 현장적응훈련이 실시되었고 보충교육까지 4차례 교육이 실시되었다.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기사복무지침·안전운행·전용차량 배차시스템·노선교육 등을 내용으로 승용차 기사와 버스 기사로 나눠 교육이 실시되었고 수송담당관에게는 셔틀버스 시간표 및 배차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실시되었다.

1988년 8월에는 특정 NOC선수단의 입국 수송, 특정종목선수의 경기장 수송과 개회식 수송의 예행연습이 실시되었다.

4.2. 수송운영준비

□ 기본준비

선수·임원에 대한 수송계획의 기초는 얼마나 많은 선수·임원이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느냐 하는 참가선수단의 인원추정업무였다. 1987년 1월 경기조정관실이 발간한 서울올림픽 참가선수단 추정규모를 수송계획 수립시 기초수치로 활용하였다.

조직위는 이 기초자료를 근거로 소요차량, 인력·시설의 확보계획과 서비스제공수준 및 일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종목별 참가인원수·경기일수·경기장소·연습장소 등을 자료로 경기일정 및 연습장 사용일정을 분석, 바로 선수단의 흐름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 운행노선, 소요차종과 운행시간 등이 결정되었으며 운행인력의 규모, 시설규모 등이 결정되었다.

종목별 경기일수는 배구·복싱·수영이 각 15일, 농구 14일 하키 13일, 승마·핸드볼·테니스12일, 체조·역도 11일 등이었다.

수송서비스 제공기간은 1988년 9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34일간이었으며 수송대상은 참가국 160개국, 선수 9,417명, 임원 3,887명, 총 1만 3304명이었다.

□ 운행노선 확정

연습장 및 경기장별 운행노선을 1987년 1월부터 11월 사이 노선 선정 및 조사를 통하여 확정되었다.

운행노선을 총 116개로 경기장 34개 노선, 연습장 82개 노선으로 분류되었다.

조직위는 1987년 6월부터 8월까지 셔틀버스 운행노선 현지 합동 교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87년 9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치안본부 올림픽기획단, 서울시 경찰국,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광버스운영회 등 유관부서 실무협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 전용차량 할당

조직위는 선수.임원단 참가규모에 따라 전용차량을 할당 운영하였다. 전용차는 승용차와 미니버스였으며 최저 25명 미만 참가 NOC에 승용차 1대씩, 26명 이상 50명 미만은 승용차와 미니버스 각 1대씩을 배정하는 등 기준에 따라 NOC 선정 차량을 할당하였다.

전용차는 입촌과 동시에 배정되었고 퇴촌과 함께 회수되었다. 일일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를 원칙으로 하였고 운행지역은 서울의 경기장과 연습장에 한하며 지방경기장 운행은 전용차량담당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회기간 전용차량의 수송실적은 승용차 연 7,215대, 수송인원 연 2만 1099명이었으며 미니버스 연1,795대, 수송인원 연 2만 1369명이었다.

참가규모별 전용차량 할당기준은 표와 같다.

참가규모별 전용차량 할당기준

참가규모(명)	승 용 차	미니버스
1- 25	1	0
'26- 50	1	1
51-100	2	1
101-200	3	1
201-300	3	2
301-400	3	3
401-500	4	3
500 이상	5	3

4.3.대회중 운영

□ 입출국 수송

선수·임원단의 입출국일정에 맞추어 김포공항, 선수촌간 버스를 배차 운행하였고 선수단장에게는 승용차를 할당하였다.

입국 수송은 항공기별 입국인원에 따라 차량운행이 이루어졌으며 선수단장에게는 풀제로 승용차가 제공되었다. 단체입국 선수단에게는 45인승 대형버스가 제공되었으며 6명 이하의 선수단에게는 17인승 미니버스가 제공되었다. 단체입국시에는 화물차도 제공되었다.

차량제공기준은 ① 단체입국시 45인승 대형버스 1대당 30명 승차기준으로 배차하였다. 차량배차시 레슬링·역도 등은 선수들의 체격이 고려되었으며 지참화물, 동승호위대원, 통역안내요원, 종목별 탑승 등이 고려되었다. ② 소규모 선수단 입국시에는 선수단의 수화물을 고려하여 처리하되 7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버스를, 6명 이내인 경우에는 미니버스를 배당하였다.
③ 사격경기장이나 조정경기장 및 동물검역소로 출발하는 선수단에게는 미니버스가 제공되었다.

운행노선은 김포공항 - 행주대로 - 올림픽대로 - 올림픽대교 우회 - 올림픽공원 - 선수촌까지 37km였으며 소요시간은 약 50분이었다.

선수단의 입국 수송은 공항수송부에서 시작되었다. 공항수송부는 항공기별. 청사별 입국예정인원을 전날에 파악하여 종합수송부에 차량배차를 의뢰, 수송에 필요한 차량을 준비하였으며 대규모 선수단이 도착할 때는 대기차량 전면 유리창이나 화물차 뒷문에 국가별·수송노선별 안내문을 부착, 수송안내가 용이하도록 조치하였다.

항공기 도착 후 탑승교에서 콘베어 벨트까지는 영접요원이 안내하고 세관구역에서 수송요원이 인계받아 안내를 맡았으며, 수송요원은 입국수속이 완료된 선수단을 세관구역 밖까지 안내, 승차안내요원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밟았다.

14. 선수촌 전용주차장에 각 NOC 선수단에 배정된 전용차량이 주차해 있다.

15. 경기일정에 맞춰 셔틀버스가 경기장까지 선수단을 수송하였다.

공항수송부는 선수단을 실은 차량을 출발시킨 후 선수촌 수송부에 도착, 선수단의 인원수와 수송차량 대수 및 화물차량 등 입국선수단의 수송현황을 통보하였으며, 통보를 접수한 선수촌 수송부는 승하차관리요원에게 입국정보를 통보하였고, 이들의 도착과 함께 선수촌운영단에 도착사실을 통보하고 선수촌운영단에 인계하였다.

지참화물 수송차량은 화물검색 후 해당 NOC투숙동 앞에 내려져 선수촌 서비스센터에 인수인계되었다.

출국 수송은 NOC서비스센터가 선수촌 운영단으로부터 출국 전일 출국. 퇴촌정보를 통보받아 인원수·소요차량 대수·화물차량 소요대수 등을 확정·배차신청을 하고 셔틀버스담당관과 전용차량담당관은 배차 후 배차결과 자료를 동승경호단·동승통역요원·기사대기실·승하차담당자·수송안내센터 담당자·NOC 서비스센터 수송담당자에게 각 1부씩 전달하였다.

선수촌 수송부는 배차차량을 출발시킨 후 공항수송부와 수송운영단 상황실, 선수촌운영단 상황실에 통보하고 수송이 완료되면 다시 결과를 통보하였다.

□ 연습장 수송

• 수송방침은 ① 7개 구기종목에 팀별 전용버스를 배차 운행하였다. 구기종목은 축구·농구·배구·하키·수구·핸드볼·야구 7개 종목이다. ② 양궁·사격 등 공개연습종목은 셔틀버스를 운행, 기타 종목은 연습일정에 따라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를 배차 운행하였다. ③배드민턴과 볼링 등 전시종목은 종목별 전용버스를 배차 운행하였다. ④ 운행노선에 따른 업체별 전담제를 실시, 차량과 운전기사를 고정배차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⑤ 동승경호원 2명과 동승안내원 1명이 탑승 안내하였다.

• 차종 및 승차기준은 45인승 대형버스가 35명 탑승기준이었고 레슬링·역도·펜싱·양궁은 체격 및 장비 부피를 고려, 대형버스 26명, 미니버스 10명 탑승을 기준으로 배차하였다.

• 운행기준은 선수촌 출발 10분 전 지정승차장에 대기, 지정 연습시간 15-30분 전에 연습장 도착, 연습이 끝나고 20분 후 연습장을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승차장은 구기종목의 경우 선수촌내 도로에 종목별 표지판을 설치 이용하였고 기타 종목은 선수촌 28번 도로상에 각 종목별 터미널을 이용하였다. 하차장은 28번 도로 출입구 하차장(2개소)을 이용하였다.

• 배차관리는 경기장안내센터에서 사전에 연습장 사용일정을 확정하고, 자료를 배포하여 구기종목 및 전시·시범 종목은 사용 전일 오후 8시까지 경기안내센터 수송담당자에게 배차신청서를 제출, 배차내역을 통보받게 하였다.

□ 경기장 수송

• 수송방침은 ① 7개 구기종목에 팀별 전용버스 배차 운행 ②20개 종목은 이미 작성된 운행노선 및 셔틀버스 시간표에 따라 운행 ③ 전시종목 전용버스 운행 ④ 종목별 전담업체 지정으로 차량 및 운전기사 고정배차 ⑤ 동승경호원 및 안내원 탑승방침에 따라 시행되었다.

• 운행기준은 출발 10분 전 지정승차장 대기, 경기종목별 특성에 따라 경기 시작 60~150분전에 경기장 도착, 경기 종료 후 20~80분 후 출발하였다.

• 승하차장 이용은 구기종목의 경우 선수촌내 도로에서 승차하고, 기타 종목은 28번 도로 각 종목별 터미널에서 승차하며, 하차는 28번 도로 지정출입구 하차장을 이용하였다.

• 배차관리는 ① 구기종목 및 전시·시범종목은 사용 전일 오후 8시까지 경기안내센터에 배차신청한다. ② 경기안내센터는 전일 오후 9시에 1차 마감하고 셔틀버스담당관은 배차작업을 실시한다. ③ 배차결과를 전산입력, 자료화하여 배포한다. ④ 각 기사관리담당에게 배차내역을 통보하고 운행지시를 한다. ⑤ 수송부장은 일일 수송운행결과를 수송운영단 상황실에 보고한다.

□ 개·폐회식 수송

개회식 수송은 1988년 9월 17일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90분간 시행되었으며 대상은 선수·임원 1만 600명이었고 소요차량은 대형버스 232대였다. 수송노선은 선수촌 - 강동대로 - 올림픽대교 남단 - 올림픽대로 - 종합모터풀 코스였으며 소요거리 6.5km, 소요시간 10분이었다.

• 수송방법은 시차제 편대 구성에 의한 수송으로 수송량 분산 및 교통혼잡 방지, 숙소별로 가까운 5개 터미널을 승차장으로 지정, 선수단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개회식 입장권 소지자에게 우선수송을 배려하였다.

각 NOC 대표단 통역요원의 전담국가를 지정하여 차량유도와 동승안내를 권유하고 서울시경 협조로 경찰 에스코트를 받도록 하며 수송노선상의 교통통제를 실시하였다.

• 운행방법은 1개 편대 30대 기준으로 편성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하였다.

귀촌 수송은 국가별 구분없이 승차토록 하였고 귀촌 수송도 시차제 편대를 구성하였으며 선수촌 출입구를 3개소로 나눠 혼잡을 막았다.

폐회식 수송은 1988년 10월 2일 오후 5시 20분부터 6시 20분까지 60분간이었다. 대상은 선수·임원 8,000명, 대형버스 210대가 소요되었다.

수송노선과 수송방법은 개회식 때와 같았다.

4.4. 수송실적

1988년 8월25일부터 수송서비스가 제공되었다. 8월25일부터 31일까지는 전용차량인 승용차만 배차 운영되었고 이용자도 연233명이었다. 9월 1일부터 승용차와 미니버스가 전용차량으로 배당되었으며 셔틀버스는 9월1일과 2일 각 6대, 3일부터 차츰 늘어났고 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평균 연 200대선, 15일 이후 28일까지 하루 평균 연 300대선이었다. 버스 이용대수는 10월 6일까지 누계 7,689대, 15만 9617명이었으며 전용차량은 승용차 연 7,215대 2만 1100명, 미니버스 1,797대 2만 1379명의 수송실적을 기록하였다.

선수단 수송실적

월 일	전용차량				셔틀버스	
	승용차		미니버스			
	대 수	인 원	대 수	인 원	대 수	인 원
8.25	1	2				
26	5	12				
27	2	5				
28	2	3				
29	2	7				
30	46	176			60	20
31	9	28				
9. 1	21	71	3	44	6	20
2	28	91	3	38	6	30
3	43	159	8	108	25	80
4	44	168	9	124	30	130
5	68	214	8	118	44	265
6	72	231	14	223	43	499
7	102	384	17	254	47	574
8	106	318	21	312	60	635
9	138	441	25	327	72	945
10	150	484	33	396	140	2,250
11	188	585	36	437	202	2,510
12	240	747	46	414	239	2,417
13	285	889	54	780	266	3,350
14	280	874	73	803	292	2,969
15	288	915	75	876	306	3,955
16	235	753	88	974	304	2,900
17	221	453	64	815	337	12,110
18	306	910	65	783	363	6,555
19	268	811	67	958	373	6,900
20	272	843	69	818	378	9,030
21	282	914	66	824	387	9,693
22	266	789	69	936	385	8,600
23	275	915	77	844	356	9,200
24	282	778	62	824	341	9,335
25	248	710	68	815	319	10,100
26	263	683	69	941	309	965
27	299	814	65	765	301	8,350
28	267	715	75	869	306	7,850
29	263	693	74	821	288	7,685
30	270	698	74	804	257	6,170
10. 1	273	713	77	618	194	5,800
2	231	684	91	886	266	8,400
3	230	514	71	784	194	6,300
4	198	501	62	810	160	2,200
5	143	398	13	164	28	680
6	3	7	6	72	5	145
계	7,215	21,100	1,797	21,379	7,689	159,617

제27장 수송

5. 심판진 수송

5.1 기본사항

심판진 수송 기본방침은 ① 심판진의 숙소와 해당경기장간 셔틀버스 운행 ② 신청에 의한 요구차량 운행 ③ 전용모터풀 설치 운영 ④ 수송부 모터풀 및 9개 숙소간 상황통제체제 확립 등으로 국내외 심판진에게 안전한 수송편의를 제공하는 데 두었다.

수송대상은 9개 지정숙소에 투숙하는 국내외 심판진 1,292명과 집행위원 265명 등1,557명이었으며 수송장소는 34개 경기장, 등록센터, 개·폐회식장 등 공식행사장과 공항간 구간이었다.

지정호텔 심판진에게는 경기장 수송, 등록 수송, 행사장 수송, 개·폐회식 수송, 출국 수송이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공되었다.

숙소에서 경기장까지의 경기장 수송에는 셔틀버스가 제공되었으며, 숙소에서 등록센터까지의 등록 수송은 9월3일부터 30일까지 셔틀버스와 승용차가 운행되었고 셔틀버스는 신분 구별없이 탑승할 수 있었다. 행사장 수송에는 버스와 승용차가 요구 배차되었으며, 개·폐회식 수송에는 9월 17일과 10월 2일 버스를 이용한 단체수송이 이루어졌고, 출국 수송 역시 버스로 단체수송되었다.

패밀리아파트에 투숙한 심판진에게는 지정호텔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IF집행위원에게는 등록 수송과 행사장 수송 및 출국 수송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전시종목 선수·임원에게는 등록 수송 및 출국 수송에 전용차량이 운행되었다. 심판진 수송을 위하여 심판진 수송부가 구성 운영되었다.9개 지정호텔은 뉴월드 호텔·리베라호텔·삼정호텔·유니버스호텔·팔레스호텔. 하이야트호텔·앰배서더호텔·타워호텔과 패밀리아파트이다.

운영조직은 수송부장 아래 운행관리담당관이 패밀리아파트의 심판진 수송업무를 맡았고, 지정호텔담당관이 패밀리아파트를 제외한 8개 지정호텔 투숙 심판진의 수송을 담당하였다. 각 호텔에는 통역 및 동승안내원이 대기, 수송업무를 도왔다.

이밖에 모터풀담당관이 배차반과 관리반을 운영, 배차와 기사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운영인력은 조직위 직원 2명, 지원요원 30명, 자원봉사자 110명 등 142명과 용역요원 100명이었으며 이들에게는 간부요원, 운영요원, 기사로 분류 교육이 실시되었다.

1988년 8월 24, 25, 30일 3일간 심판진에 대한 경기장 수송 예행연습이 실시되었다.

5.2 운영준비

수송수요는 각 숙소별·종목별 투숙 인원과 집행위원수를 예측하고, 일정별로 경기장과의 소요차량을 도출한 후 이를 재조정하는 작업으로 1차적으로 1987년 6월말까지 소요산정 후 12월 말까지 재조정작업을 계속하였다.

1987년 6월 1일부터 8월14일까지 경기장 수송 57개 노선, 등록 수송 9개 노선, 출국 수송 9개 노선, 기타 24개 노선에 대하여 ① 노선별 거리 및 소요시간 ② 노선경유지에 대한 교통상황 점검 ③ 경기장별 진출입 동선파악 및 승하차장·전용주차장 확보 ④ 우발사태에 대비한 대체노선 확보 등을 중점조사, 1987년 10월 운행노선을 확정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장소별 수송계획과 조직·인력·물자·시설 운영계획 1차안이 1987년 8월 작성되어 검토를 거쳐 수송운영계획 최종안이 10월말까지 완성되었다.

1988년 3월 단계별·기능별로 인력이 보임 배치되고, 동년 7월부터 시설확보 및 물자배치가 완료되었다.

한강고수부지 종합모터풀의 기존시설을 활용, 심판진 수송모터풀이 설치 운영되었다.

모터풀 사무실은 115㎡, 기사대기실 66㎡, 안전요원대기실 148㎡를 확보하고 다른 시설은 종합모터풀시설을 활용하였다.

주차장 6,600㎡가 확보되었다.

패밀리아파트에는 수송부 사무실·안내데스크·숙직실이 수송업무용으로 활용되었고 1,653㎡ 면적의 주차장이 설치되었다. 또한 각 지정호텔마다 호텔로비 가까운 곳에 사무실과 안내데스크 숙직실이 설치 운영되었다.

5.3. 대회중 운영

9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30일간 심판진 수송실적은 동원된 차량이 버스 556대, 미니버스 595, 승용차 88대로 모두 1,239대가 투입되어 연인원 2만 7872명을 수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경기장 수송

심판진의 경기장 수송은
① 경기기간 중
각 심판진의 숙소와 해당경기장은 종목별 세부경기일정에 맞춰 작성된 시간표와 운행노선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② 지방경기에 참가하는 심판진에 대해서는 17인승 미니버스 운행
③ 마라톤 및 경보 심판진에 대해서는 경기 시작 120분 전에 마라톤코스 및 경보코스 출발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차량신청에 의한 특별배차
④ 근대 5종경기에 참가하는 세부종목별 심판진에 대하여 일정별로 차량신청에 의한 특별배차 ⑤ 배드민턴·볼링의 전시종목 심판진에 대해서는 일정별로 차량신청에 의한 특별배차 ⑥ 경기가 시작되기 전 종목별 심판진회의, 경기장 사전답사 등은 하루 전 차량신청에 의한 배차가 이루어졌다.

경기장 수송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였으며 대형버스와 미니버스가 왕복으로 운행되었다.

심판진 숙소와 경기장간의 수송노선은 패밀리아파트가 20개 노선으로 가장 많았고, 뉴월드호텔이 8개 경기장, 하이야트호텔 5개 경기장, 팔레스와 앰배서더호텔이 4개 경기장, 삼정호텔 3개 경기장, 타워호텔과 리베라호텔이 2개 경기장이었으며 유니버스호텔은 1개 경기장 노선이었다.

각 숙소와 경기장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숙소중심으로 운행노선 전담업체가 지정되어 책임 운행되었다.

특히 심판진의 경기장 수송업무는 종목별 경기진행 특성을 고려하여종목에 따라 경기 시작 30분에서 180분 전에 도착해야 하므로 철저한 일정계획표에 따라 운행되었다.

경기 종료 후에도 퇴장 소요시간과 시상식 소요시간을 감안, 심판진 수송차량은 경기가 끝난 뒤 20분에서 40분 후에 경기장을 출발하였다.

이밖에 지방경기장의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심판진에 대하여 경기 1일 전에 각 경기장별로 17인승 셔틀버스 1대씩을 배차하였다. 수송대상 심판은 지방 1개 경기장에 4명씩 16명이었다.

대회기간 동원된 버스가 337대, 미니버스 190대 총 527대로 연인원 1만 5468명의 수송실적을 남겼다.

지방경기장간 수송은 9월 17일부터 미니버스가 하루 4대씩 9월 23일까지 운행되었고,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대, 27, 28일은 1대가 운행되어 연인원 389명이 수송되었다.

경기장 심판진 수송은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경기장의 심판진을 위한 차량은 대회 하루 전인 9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막 첫날인 9월 17일 버스 3대, 미니버스 2대가 투입되어 연인원 326명을 수송한 것을 시작으로 최하 28대, 최고 44대의 버스가 심판진 수송에 동원되었다. 10월 2일 버스 6대, 미니버스 3대가 투입되어 270명을 운송한 것으로 심판진 수송이 종료되었다.

□ 행사장 수송

행사장 수송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종목별 심판진회의, 경기장 사전답사, 공식연회 등에 참석하는 심판진을 위해 신청에 의한 특별배차가 시행되었다.

개·폐회식 참석을 위한 수송차량은 수송부에서 총괄하여 모터풀에 운행 요청하였으며, 개·폐회식 일정에 맞춰 9개 숙소에서 올림픽 주경기장간에 단체수송이 시행되었다.

개·폐회식 때 심판진에 대한 단체수송을 위하여 수송수요 분석과 숙소별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

개회식에는 대형버스 35대를 투입하여 1,066명을 수송하였고, 폐회식에는 대형버스 16대와 미니버스 2대를 투입하여 570명을 수송하였다.

□ 등록 수송

외국심판진 입국 후 등록카드 발급을 위하여 숙소와 등록센터인 인터콘티넨탈호텔간에 셔틀버스가 운행되었다.

9월 6일부터 24일까지의 등록 수송에는 대형버스 15대와 미니버스 24대를 투입하여 1,003명을 수송하였다.

수송부는 정기적인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정식종목과 전시종목에서 차량신청을 해오면 특별배차를 시행, 차량을 운행하였다.

근대 5종·배드민턴·볼링종목과 마라톤 및 경보 심판진 수송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요구차량이 운행되었다.

차량신청은 사용 전일 오후 6시까지 숙소안내데스크에서 접수 마감하고 수송부에서 모터풀에 배차신청하면 차량 할당여부 결과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숙소에 알리며 숙소에서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가지게 함으로써 차질이 없게 하였다.

요구에 의한 심판진 수송실적은 대형버스 122대, 미니버스 261대, 승용차 78대를 투입하여 연인원 8,230명을 수송하였다.

또한 각 심판진의 출국일정에 맞추어 김포공항까지 단체로 출국 수송이 시행되었다.

운행방법은 출국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출국 수송시 탑승기준은 45인승 대형버스는 20명 탑승, 17인승 미니버스는 6명 탑승기준에 따랐다.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출국 수송에는 대형버스 27대와 미니버스 25대를 투입하여 1,146명을 수송하였다.

□ 예비차량 운행

예비차량은 긴급수송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모터풀에서 관리하는 예비차량 일부를 각 숙소에 배차 운영하는 것이다. 버스는 숙소별 전담업체에서 당일 운행차량의 10%수준으로 예비차량을 확보, 모터풀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숙소에 조기 배차하였다.

승용차는 숙소별로 2대씩 배정하여 운영하였다. 용도는 경기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요구나 또는 탑승인원이 소규모로 버스배차가 부적합한 경우에 이용되었다.

수송부 지정호텔담당관이 셔틀버스 요구차량과 함께 예비차량의 운행 및 배치계획을 전산처리하고 운행을 총괄하였다.

심판진 수송실적

구 분	버 스		미니버스		승 용 차		계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경기장 수송	337	12,374	190	3,094			527	15,468
지방경기 수송			43	389			43	389
등록 수송	15	620	24	383			39	1,003
개·폐회식 수송	51	1,616	2	20			53	1,636
출국 수송	27	890	25	256			52	1,146
요구 수송	122	4,882	261	2,914	78	434	461	8,230
대기차량	4		50		10		64	
합 계	556	20,382	595	7,056	88	434	1,239	27,872

16. 종합수송부에서 배차된 차량이 공항에 내린 선수단원의 승차를 기다리고 있다.

17. 셔틀버스로 성남공설운동장에 내린 하키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27장 수송

6. 보도진 수송

보도진 수송업무는 대상별로 인쇄매체 보도진과 방송 보도진 수송으로 크게 구분된다. 장소별로는 기자촌 · MPC · IBC로 구분 운영되었다. 인쇄매체 보도진은 기자촌 및 MPC수송부가, 방송 보도진은 IBC 수송부가 전담, 수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보도진 수송은 인쇄매체 보도진 4,933명, 방송매체 보도진 1만 360명 등 총1만 5293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운행장소는 기자촌、MPC、IBC기점 25개 경기장과 14개 투숙호텔이 수송장소였다.

운행 기본노선은 38개 노선으로 기자촌 기점노선이 3개, MPC기점 15개, IBC 기점 20개 노선이 운행되었다.

지방경기 취재를 위한 수송이 사전신청에 의하여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운행되었다. 대전 · 대구 · 광주의 축구예선전 일정에 맞춰 경기 2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1일 1회 왕복을 원칙으로 운행되었다.

이밖에 보도진을 위하여 판문점 관광버스와 시내 관광버스가 신청을 받아 운행되었다.

보도진 수송은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이 기간에 투입된 차량은 버스와 미니버스를 합하여 연 3,958대, 수송인원은 23만 7956명의 실적을 올렸다.

이를 수송부별로 보면 기자촌 수송부가 1,496대 17만 8293명, MPC 수송부 591대 2만 2664명, IBC수송부 1,898대 3만 6999명을 수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기셔틀버스 3,420대 19만 2054명, 개、폐회식 수송 123대 9,842명, 입·출국 수송 140대 3,766명, 행사장 수송 62대 1,720명, 기타 47대 1,823명으로 분류 집계되었다.

6.1. 기자촌 수송

□ 운영준비

기자촌 수송서비스는 ① 기자촌에서 MPC·IBC간 숙소 수송과 기자촌에서 올림픽공원 - 종합운동장 - MPC - IBC간 경기장 수송에 정기셔틀버스를 무료 운행하였다.

② 기자촌에서 올림픽주경기장간의 개.폐회식 수송과 기자촌 - 공항간 출국 수송 및 기자촌 - 행사장간 행사장 수송에 비정기 단체수송을 무료로 시행하였다.

③ 기자촌 투숙 보도진의 신청을 받아 개별목적지까지의 유료 렌터카 알선업무를 기자촌 수송부가 수행하였다.

기자촌 수송부 운영은 수송부장이 총괄하며 그 아래 모터풀담당관이 행정반 · 상황반 · 배차반을 관리하였고, 주차소통담당관이 주차관리반과 승하차관리반을, 운행관리담당관이 지원반과 안내반을 관리하였다.

운영인력은 모두 113명으로 조직위 직원 1명, 자원봉사자 98명, 지원요원 5명, 단기고용 1명과 용역요원 8명이었다.

기자촌 수송은 1988년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34일간이었으며, 수송대상은 기자촌 입촌인원 111개국 5,186명의 보도진이었다.

기자촌에서 수송연결 동선은 MPC · IBC、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이다. 소요차량은 최대일 소요기준 대형버스 86대, 미니버스 6대 등 총 92대로 연소요 1,157대였다.

기자촌 동측 도로상에 임시가건물 330㎡를 지어 수송모터풀 사무실로 이용하였으며 주차능력 버스 72대의 주차장 5,943㎡를 확보하였다.

렌터카 이용 안내는 유료로 수행된 개별목적지 수송기능이었으며, 수송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대회중 운영

신문·통신 등 인쇄매체 보도진에 대한 가장 주요한 수송서비스는 경기일정별 셔틀버스 운행이었다. 셔틀버스는 ① 기자촌 - MPC ② 기자촌 - IBC ③ 기자촌 - 올림픽공원 - 종합운동장 - MPC - IBC 3개 노선이었다.

운행시간은 10분에서 2시간 간격을 두고 24시간 운행되었으며, 경기 시작 1~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1 - 2시간 후까지 운행되었다.

3개 노선별 운행실적은 9월2일부터 10월 5일까지 1,114대가 투입되어 13만 9350명을 수송하였다. 셔틀버스 일자별 운행실적은 표와 같다.

단체수송은 개、폐회식 수송, 출국 수송, 문화행사장 수송으로 구분된다. 개회식 수송은 9월 17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30분까지 입장운행과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15분까지 퇴장운행으로 구분 운영되었다.

수송인원은 3,350명으로 운행차량은 40대였다.

기자촌 일자별 셔틀버스 운행실적

월 일	기자촌 — MPC		기자촌 — IBC		기자촌—올림픽공원—종합운동장— MPC — IBC		계	
	대 수	인 원	대 수	인 원	대 수	인 원	대 수	인 원
9. 2	1	55	1	10			2	65
3	4	112	6	80			10	192
4	4	200	6	95			10	295
5	4	304	6	114			10	418
6	4	394	6	165			10	559
7	4	475	8	432			12	907
8	6	851	8	278			14	1,129
9	6	1,406	8	390			14	1,796
10	6	1,370	8	413			14	1,783
11	6	1,269	8	464			14	1,733
12	10	2,044	11	541			21	2,585
13	13	2,514	11	849			24	3,363
14	13	3,166	10	995			23	4,161
15	14	3,323	10	947			24	4,270
16	16	3,996	10	1,034			26	5,030
17	13	2,533	10	878	11	440	34	3,851
18	16	3,337	19	1,085	20	2,981	55	7,403
19	18	3,309	16	1,178	21	2,426	55	6,913
20	16	3,362	17	955	22	2,496	55	6,813
21	17	3,467	17	1,632	22	3,120	56	8,219
22	19	3,325	15	934	22	2,468	56	6,727
23	21	3,191	17	973	23	3,638	61	7,802
24	19	3,062	17	869	19	3,619	55	7,550
25	19	3,352	17	960	21	3,420	57	7,732
26	19	3,689	17	965	22	2,582	58	7,236
27	19	3,947	17	968	22	2,004	58	6,919
28	19	2,990	16	832	22	2,757	57	6,579
29	19	3,098	15	824	24	2,660	58	6,582
30	19	3,366	15	882	24	2,856	58	7,104
10. 1	20	3,280	15	786	23	2,511	58	6,577
2	16	2,610	11	907	17	2,144	44	5,661
3	3	962	3	235			6	1,197
4	2	118	1	55			3	173
5	1	26	1				2	26
합 계	406	74,503	373	22,725	335	42,122	1,114	139,350

운행방법은 기자촌을 기점으로 행사 입장시간에 맞추어 종합운동장까지 운행하였는데 1회에 3~8대씩 5분 간격으로 13회 운행하였다.

퇴장운행에는 승차 때와 역순, 회차하였다. 폐회식 수송은 수송대상이 1,076명으로 입장운행은 오후 5시 20분부터 6시 15분까지, 퇴장운행은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55분까지 1회에 2~3대씩 10회 운행하였다.

출국 수송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설문에 의하여 일정별·시간대별 출국인원 자료를 작성, 기자촌-공항간 단체버스를 배차 운행하였다.

출국 수송노선은 기자촌-올림픽대로-공항신청사까지이며 거리 36.6km, 소요시간 45분이었다.

출국 수송에는 대형버스 119대가 동원되어 3,161명을 수송하였다.

문화행사장 수송은 지원대상이 공식연회 및 대규모 국제회의 참가 보도진으로 수송방법은 행사주관부서의 행사계획에 의한 사전 배차신청에 의거, 배차 운행하였다.

9월 12일 국립극장 IOC 총회에 취재기자를 위하여 8대의 대형버스를 준비, 취재를 지원하였다. 대회기간 중 기자촌 수송부는 서울의 명소가 된 이태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 쇼핑을 도왔다.

보도진들의 요구에 따라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 취재가 끝나는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일 2회씩 총 12회 이태원까지 왕복운행하였으며, 수송인원은 1,239명이었다.

기자촌내 외부차량 운행제한으로 받을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자촌내 셔틀버스 운행차량은 미니버스를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1일 최저 3대, 최고 10대까지 운행하였다.

6.2. MPC수송

□ 운영준비

인쇄매체 보도진 활동의 중심무대였던 MPC에 수송모터풀이 설치되어 MPC 기점 수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수송범위는 경기장 수송, 숙소 수송, 단체수송이며 수송 기본방침은 ① 수송부 모터풀 설치 운영 ② 노선별.경기일정별 정기셔틀버스 운행 ③ 주요행사일정에 따른 단체수송이다.

MPC에서의 수송은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송대상은 등록보도진 4,933명이었으며, 수송장소는 수도권 25개 경기장, 14개 보도진 투숙 지정호텔, 3개 지방경기장, 기자촌, IBC 및 주요행사장이다.

MPC수송부의 인력은 93명이었으며, 수송부장 아래 모터풀담당관이 행정·상황·안내·배차반을 관리 운영하였으며, 운행관리담당관이 운영반과 지원반을 관리 운영하였다.

수송서비스는 ① MPC-경기장간의 경기장 수송에 경기일정에 따라 30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정기노선 셔틀버스가 운행되었고 ② MPC-숙소간 숙소 수송에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정기노선 셔틀버스가 운행되었으며 ③ MPC-올림픽주경기장간 개·폐회식 수송 ④ MPC-행사장간 행사장 수송에 진행시간대에 따라 비정기 단체수송이 제공되었다.

수송모터풀은 MPC 구내 임시가설물에 사무실을 두고 8,198㎡의 주차장을 이용하였으며, 주차가능대수는 100대였다.

차량운행방침은 ① 노선별 버스운행 전담업체 지정관리 ② 일자별 차량운행 일정에 따른 차량의 사전확보 ③ 차량, 운전기사 및 동승경호원 고정조 편성·관리 등이었다.

운행시간은 숙소 노선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경기장 노선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2시간 후까지이며 운행간격은 30분에서 2시간이었다. MPC기점노선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MPC 경유노선은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였다.

□ 대회중 운영

단체수송은 개·폐회식 수송, 문화행사장 수송으로 구분되었다. 개회식의 입장운행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였으며, 퇴장운행은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다. 거리 및 소요시간은 2km 10분으로 소요차량 10대, 운행방법은 1회에 2대씩 5~10분 간격으로 10회 운행되었다.

개회식 수송인원은 2,650명이었다.

폐회식 수송은 10월 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입장 수송을,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퇴장 수송을 하였으며, 운행방법은 1회에 10대씩 5~10분 간격으로 운행되었다. 폐회식 수송인원은 30대 1,256명이었다.

문화행사장 수송방침은 행사주관부서의 사전계획에 의한 차량신청에 의거, 버스가 운행되었다. 수송지원대상은 공식연회 및 대규모 국제회의 참가보도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운행방법은 MPC로부터 행사장까지 버스를 배차 운행하였다.

렌터카 이용 알선은 지정렌터카업체를 선정하고 렌터카 이용 알선창구를 개설하여 업체 직원이 상주하여 예약과 대금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988년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34일간 셔틀버스가 운행되었으며, 운행노선은 모두 15개 노선으로 MPC-경기장간 14개 노선과 MPC- 호텔간 1개 노선에 각각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었다.

운영기간 중 경기장 수송에 연 375대의 버스가 투입되었으며, 숙소간 1개 노선에 연 109대가 운행되었다.

MPC 셔틀버스 운행실적

노 선	운행일수	버스 운행실적	
		대 수	인 원
화랑양궁장	5	15	595
태릉국제사격장	7	23	1,250
한강조정경기장	13	37	2,057
사이클경기장	3	12	903
서울승마공원	11	32	1,158
원당종합마술경기장	1	3	113
수원실내체육관	11	38	1,119
성남공설운동장	13	44	1,539
상무체육관	10	38	2,258
장충체육관	11	36	1,269
동대문운동장	4	8	276
한양대학교체육관	14	49	1,609
새마을체육관	5	16	262
서울대학교체육관	8	24	1,061
힐튼호텔	19	109	1,369
계		484	16,838

제27장 수송

6.3. IBC수송

□ 운영준비

방송보도진에 대한 수송서비스는 IBC 수송부에서 제공되었다. 업무범위는 ① IBC수송모터풀 설치 ② 노선별·경기일정별 정기셔틀버스 운행 ③ 비정기 단체수송 ④ 렌터카 이용 알선 등이었다. 수송기간은 1988년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였으며, 수송대상은 1만 360명이었다. 수송장소는 MPC·기자촌·투숙호텔과 각 경기장 및 행사장이다.

소요인력은 92명으로 소요차량은 대형버스 56대, 미니버스 28대 등 총 84대로 연소요차량은 1,370대로 계획되었다.

IBC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지하 2층, 지상 9층의 7만 3161㎡ 규모이다.

IBC 수송업무는 9월2일부터 16일까지 IBC와 14개 투숙호텔간 등록 수송을 위한 정기셔틀버스를 운행하며, 9월 17일 개회식 수송,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장 및 숙소 수송, 10월 2일 폐회식 수송,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출국 수송,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행사장 수송이 계획되었다.

운영계획상 서비스수준은 등록 수송에서는 투숙호텔 - IBC간이 수송구간이며 미니버스와 대형버스를 혼용배차, 정기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

경기장 수송은 IBC - 경기장간 정기셔틀버스를, 숙소 수송은 IBC - 투숙호텔간 정기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

개·폐회식 수송은 투숙호텔 또는 IBC 기점 - 종합운동장간 시차별 단체수송, 출국 수송은 투숙호텔 - 공항간 비정기 수송이었다.

투숙호텔 - 행사장간의 행사장 수송이 주관부서 요구시 비정기 수송으로 이루어졌다. 개별적 수송수단을 원하는 보도진에게 유료의 렌터카가 알선되었다.

정기셔틀버스 운행노선은 IBC 기점 각 경기장간 14개 노선과 투숙호텔 6개 노선이었다. 운행방법은 IBC 기점 각 경기장 및 보도진 투숙 지정호텔에 경기일정과 수송일정에 따라 정기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이었다.

IBC - 숙소노선은 34일간 24시간 운행하고 IBC - 경기장노선은 경기 시작 2시간 전 경기 종료 후 2시간까지 운행되었다. 단체수송은 개·폐회식 수송·문화행사장 수송, 출국 수송, 렌터카 이용 알선 등이 시행되었다.

수송모터풀이 설치되고 IBC 수송부가 승하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차량운행을 관리하였다. 수송모터풀은 ABC 가건물내에 사무실과 기사대기실·동승경호원대기실 331㎡를 설치, 차량을 관리하였다.

□ 대회중 운영

IBC를 기점으로 각 경기장 및 보도진 투숙 지정호텔간 정기셔틀버스가 운행되었다.

IBC 기점 운행노선은 모두 20개 노선으로 IBC - 경기장간 14개 노선과 IBC - 호텔간 6개 노선에 정기셔틀버스가 운행되었다.

IBC - 경기장간 셔틀버스는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IBC - 호텔간은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24시간 운행되었다.

단체수송은 개·폐회식 수송, 문화행사장 수송, 출국 수송이 시행되었다.

개·폐회식 수송은 입장 수송과 퇴장 수송이 IBC 및 14개 투숙호텔에서 직접 운행되었는데 거리가 가까운 호텔은 그룹으로 묶어 1~2대씩 시차운행하였다.

개회식 수송시 오전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수송을 완료한 후 차량은 MPC에 주차대기하였다.

퇴장 수송은 오후 2시부터 2시 55분까지 개회식 때 내렸던 장소에서 버스에 나눠타고 경기장 · IBC · 숙소까지 수송되었다.

개회식 수송에는 버스 25대 890명을 수송하였고 폐회식 수송에는 버스 8대 620명을 수송하였다.

출국하는 방송 보도진을 위하여 지정호텔 또는 IBC 수송 사무실에서 1일 전 차량신청을 받아 각 호텔에서 비행기 출발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배차 운행하였다.

출국 수송차량 운행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시행되었고, 시간은 3일 동안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하였다.

출국수송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버스 21대 605명의 실적을 올렸다.

IBC수송부는 여의도 광장에 셔틀버스와 대회관련차량의 전용 주차장을 확보 운영하였다. 주차장 총 면적은 3만3111㎡이며 주차가능대수는 1,077대였다.

7. 귀빈 수송

7.1 본부호텔 수송부 설치

서울올림픽대회 귀빈은 IOC·IF·NOC 대표자, 각료급인사 및 초청인사를 말한다.

조직위는 약 3,500명으로 추정되는 귀빈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수송편의를 제공하였다.

귀빈 수송 기본방침은 ① 전용차량 할당 ② 주요행사 단체수송 ③ 귀빈 셔틀버스 운영 ④ 본부호텔 모터풀의 설치 운영 등이었다.

귀빈 수송은 경기장과 각종 공식행사장이 주요수송장소였다. 수송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35일간이었으며, 귀빈 수송업무는 본부호텔 수송부가 주관하였다.

본부호텔 수송부는 신라호텔 지하 235㎡공간에 수송부 사무실·배차데스크·기사대기실 및 전산실을 설치하고 모터풀을 운영하였다.

본부호텔 수송부장은 모터풀담당관, 행정담당관, 전용차담당관, 지정호텔담당관, 주차소통담당관, 예비차담당관을 지휘하였다.

본부호텔 수송부 운영인력은 조직위 직원 4명, 지원요원 22명, 단기고용 4명, 자원봉사자 275명, 용역요원 8명 등모두 313명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428개 업체에서 789명의 기사와 지원차량 149대, 휘장차량 275대, 택시 320대, 기타 45대 등 총 789대의 차량이 확보되어 귀빈 수송에 투입되었다.

확보된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이들이 영향력 있는 귀빈을 수송할 운전요원인 점에 유의하고 교육 및 훈련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1988년 3월 10일에는 승용차 운전원 800명, 3월 11일에는 자원봉사자 221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6월과 7월에 걸쳐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승용차 운전원과 관광버스 운전원을 대상으로 임무숙지 및 현장답사 등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IBC 수송실적

구 분	버스		미니버스		계	
	대 수	인 원	대 수	인 원	대 수	인 원
경기장 수송	297	1,923			297	1,923
숙소 수송	1,303	32,588	213	1,355	1,516	33,943
개·폐회식 수송	33	1,510			33	1,510
출국 수송	21	605			21	605
요구 수송	6	373	16	181	22	554
합 계	1,660	36,999	229	1,536	1,889	38,535

같은 기간에 자원봉사자에게 본부호텔 수송운영계획과 담당관별 교육이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반공연맹 건물에 73㎡ 규모의 정비실과 73㎡ 규모의 모터풀을 설치하고, 신라호텔에 1만 1901㎡ 주차가능대수 350대, 반공연맹에 1만 3554㎡ 주차가능대수 460대 등 총 2만 5455㎡에 승용차 750대, 버스 6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확보 운영하였다.

모터풀에서는 매일 아침 운행 전 일일점검과 가벼운 고장을 수리하고 중요부분 결함시는 지정정비업체에 의뢰하였다. 실제 본부호텔 모터풀에서는 9월9일부터 10월 4일까지 25회에 걸쳐 각종 고장차량을 수리하였다.

본부호텔 투숙 귀빈을 위하여 언어권별로 24명의 요원을 배치하여 배차데스크를 운영하였다.

배차데스크는 신라호텔 로비에 설치되었는데 배차데스크의 기능은 모든 배차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전용차량은 신청 즉시 배차하고 예비차량은 이용예정일 하루 전에 예약신청을 받아 배차하였다. 예비차량의 배차요건은 IOC·IF·NOC·GV·G카드 소지인사로서 국제회의·경기장·행사장 수송 등 공적인 업무로 한정되었다.

7.2 운영준비

조직위는 수송소요 분석에서 대상인원을 본인 2,012명, 동반자 1,045명 등 총 3,057명으로 추정하고 준비를 진행하였다.

조직위는 귀빈에 대한 수송서비스 제공 기본지침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계획과 운영준비를 진행하였다.

조직위는 귀빈 수송서비스 제공에 있어 ① 귀빈은 그 신분이 다양하므로 의전등급 및 국제관례에 따라 신분을 구분, 별도의 귀빈등급을 설정하고 각 신분등급별로 필요한 수송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② 수송서비스는 전용승용차 할당, 단체수송서비스 제공, 셔틀버스 운행, 렌터카 알선, 주차증 제공 등으로 분류한다. ③ 무료 수송서비스는 대회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인사에 한정한다. ④ 이밖에 특별히 요구되는 수송서비스 문제는 본부호텔 수송부에서 판단하여 별도 조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조직위는 별도의 귀빈등급에 따라 802명에게 454대의 개인전용차량과 986명에게 258대의 그룹전용차량을 제공하였다.

본부호텔을 비롯한 귀빈 투숙호텔에서 올림픽주경기장·올림픽공원·선수촌간 운행노선 등 7개 노선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

귀빈 수송서비스 수준

귀빈등급	대상		인원			수송서비스
	카테고리	직위	본인	동반자	계	
V1	IOC	위원장	1	1	2	개인 전용 차량
		명예위원장	1	1	2	
		부위원장	3	3	6	
		사무총장	1	1	2	
	IF	ASOIF 회장	1	1	2	
	NOC	ANOC 회장	1	1	2	
	GV	수상급 귀빈	10	10	20	
V2	IOC	위원·명예위원	101	101	202	개인 전용 차량
		사무국장	1	1	2	
		솔리대리티국장	1	1	2	
		스포츠국장	1	1	2	
	IF	하계 및 시범종목 회장	20	20	40	
		하계 및 시범종목 사무총장	24	24	48	
	GV	각료급 인사, 왕족	285	185	470	
V3	IF	동계 및 승인종목 회장	17	17	34	그룹 전용 차량
		동계 및 승인종목 사무총장	19	19	38	
	NOC	위원장	140	140	280	
		사무총장	164	164	328	
	B	기술대표	49	49	98	
		OCOG 위원장·사무총장	10	10	20	
	GV	방송연맹, 휘장사업자	100	70	170	
	C	차기대회 조직위 임원	18		18	
	B	IOC 분과위원	45	25	70	풀제 차량
		IOC 직원	40		40	
		IOC 양도카드	12		12	
	C	올림픽 상장 소지자	10		10	
	G	SLOOC 초청인사	100	50	150	
V4	B	IF 집행위원	388		388	단체수송 (버스)
	G	SLOOC 초청인사	449	150	599	
합계			2,012	1,045	3,057	

귀빈용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보면 본부호텔 기점이 4개 노선으로 올림픽주경기장·선수촌·올림픽공원 1개 노선과 롯데·조선·플라자호텔간, 힐튼·하이야트호텔간, 워키힐호텔간을 운행하였고 롯데·조선·워커힐·힐튼·하이야트호텔 기점이 3개 노선이었다.

7.3.귀빈수송

□ 행사별 세부운용

체육부장관 주최 리셉션 및 KOC위원장 주최 만찬

1988년 9월 1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동 만찬에 참가한 인원은 1,100명으로 소요차량은 승용차 400대, 버스 4대가 동원되었다. 버스는 하이야트호텔 출발, 타워호텔 경유, 신라호텔간을 운행하였다.

IOC 총회 개회식

9월12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국립극장, 참석인원 1,500명으로 승용차 160대, 버스 30대, 미니버스 2대가 동원되었다.

IOC 위원장·부위원장·ASOIF회장, ANOC회장에 승용차 10대, 국내초청인사 300명에 150대, IOC위원 등 1,190명에 보스 30대가 동원되어 단체수송하였다.

수송노선은 신라호텔을 오후 5시 15분 출발 각 5분 간격으로 버스 5대씩 20대와 오후 5시 35분 4대 등 24대가 차례로 출발하여 다산로 한남동로터리 경유 국립극장까지 10분 만에 도착, 5시 45분에 입장완료하였다.

주차는 국립극장 전·후면과 국악고등학교 안에 주차시켜 혼란이 없었다.

퇴장은 이날 저녁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IOC위원장 초청 만찬 참가인사만 신라호텔로 수송하고, 그 외에는 숙소인 패밀리아파트, 하이야트호텔, 워커힐 호텔, 인터콘티넨탈호텔로 수송하였다.

IOC위원장 초청 만찬

1988년 9월12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 참가인원 700명, 승용차 10대, 버스 24대가 동원되었다.

IOC총회 개회식 참석인사 중 IOC 위원장 등 20명은 승용차 10대로 신라호텔로 돌아왔고, IOC총회 개회식 참석인사 중 만찬 참석인원 680명은 버스 24대에 분승 수송되었다.

오후 7시 15분부터 10분 간격으로 버스 8대씩 국립극장 - 신라호텔 후문 - 신라호텔로 운송되었으며, 만찬 이후 대형버스 3대로 지정호텔 및 패밀리타운 퇴장 수송이 이루어졌다.

19

19. 행사별로 귀빈 전용차량이 운행되었으며 그룹 전용차도 운영되었다.

제27장 수송

한국의 집(Tea Party)

9월 13일 오후 3시 10분, 퇴계로 중앙대학교 부속 병원 뒤 한국의 집에서 IOC위원 동반자 및 가족을 위한 Tea Party가 베풀어졌다. 참석인원은 300명, 대형버스 6대로 신라호텔을 왕복운행하였다.

위원장부인 주최 환영 오찬

9월 1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힐튼호텔에서 귀빈 동반자 및 국내초청인사 500명을 위한 단체수송이 있었다.

신라호텔 기점 힐튼호텔까지 5대, 롯데호텔에서 힐튼호텔까지 1대가 20분 만에 수송완료하였다.

경축전야제 및 환영리셉션

9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공연이 베풀어졌으며, 오후 7시 40분부터 밤 9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리셉션이 있었다.

참가자는 2,536명으로 승용차 518대와 버스 52대가 동원되었다.

수송대상은 V1급인상 36명과 국내초청인사 및 주한외교사절 1,000명을 위한 승용차 518대와 일반귀빈 1,000명, 방송 및 언론기관 500명을 위하여 버스 52대가 동원되었다. 수송노선은 패밀리아파트와 9개 호텔에서 오후 4시부터 4시40분 사이에 출발하여 4시 50분까지 수송완료하였다.

개회식

9월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올림픽주경기장에서의 개회식에 참가한 귀빈은 2,024명으로 소요차량은 승용차 18대, 버스 74대가 동원되었다.

V1급인사 36명은 전용차량 18대로 수송되었으며 IOC위원 등 1,988명은 74대의 버스로 수송되었다.

수송노선은 신라호텔 등 10개 호텔과 패밀리아파트 및 외한은행 본점앞에서 오전 9시 10분부터 9시 40분 사이 출발, 늦어도 오전 10시까지 올림픽주경기장에 도착되도록 배차 운행하였다.

퇴장 수송은, 개인전용차는 개별적으로 출발토록 하고 버스는 입장 수송과 동일한 버스로 오후 2시 5분부터 목적지를 5개 노선으로 묶어 동시에 출발하였다.

폐회식

1988년 10월 2일 오후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열린 폐회식에 1,351명의 귀빈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의 수송에 승용차 18대, 버스 48대가 동원되었다.

승용차 이용은 IOC 위원장 등 V1급 인사 36명 18대이며, IOC 위원 등 1,315명은 버스로 나눠 입장하였다.

출발지는 개회식 수송 때와 마찬가지로 10개 호텔과 패밀리아파트 및 외환은행 본점앞 출발이었고, 출발시간은 오후 5시 50분부터 늦어도 6시 10분에 출발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입장완료하였다.

퇴장 때는 개인전용차는 개별 출발하고 퇴장 수송버스는 출발지점 12개 목적지에 나눠 수송하였다.

개·폐회식 모두 외환은행 본점앞에서 버스가 출발한 것은 입장권 교환과 구입이 외환은행 본점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 수송실적

1988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버스 연 607대, 미니버스 69대, 승용차 1만 2447대, 화물차 36대 등 총 1만 3159대가 귀빈을 수송하였다.

8. 화물수송

8.1. 화물수송업체 선정

올림픽패밀리의 화물수송은 대한통운(주)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송 처리하였다. 수송대상은 선수·임원·심판진·귀빈에 관련된 화물인 지참화물·별송화물·마필·사격기재·요트류로 분류되었다.

지참화물은 입국시 소지하는 화물로 본인과 목적지에 동시에 도착되어야 하는 화물이며, 별송화물은 본인과는 별도로 수송되는 화물로 화주와 거의 같은 시간에 운송되어야 한다. 경기용 화물은 마필·사격기재·요트류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화물들이다.

경기용 마필을 마필 수송차량을 별도 제작하여 수송하였으며 보트류는 일반트럭으로는 수송할 수가 없어 트레일러를 이용하여야 했다.

사격기재는 최대의 보안이 요청되는 총포류로 경찰과 세관의 입회하에 운송되었으며, 총포 수송차량을 이용하였다.

조직위는 NOC관련화물의 특수성을 감안, 수송전문업체를 조기 선정하여 수송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각 NOC에 통보, 화물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조직위는 장비보유대수 및 운영능력·경험, 신규특수장비 제작능력 등을 감안, 서울아시아대회에서 화물수송용역업체로 지정되어 무난히 수송업무를 다한 대한통운(주)을 수송용역업체로 지정, 1987년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직위는 대한통운(주)의 연락관을 화물수송담당관으로 보임, 화물수송을 담당케 하였으며 화물차량에 대한 관리는 대한통운(주)이 자체차고에서 운영하였다.

8.2. 화물수송준비

조직위는 서울아시아대회와 서울올림픽대회의 참가규모를 비교, 예상물동량을 도출하고 그 물동량에 따른 소요장비를 확보하였다.

조직위가 추정한 참가예상국수는 서울아시아대회의 6배인 167개 NOC로, 참가예상인원도 약 2.4배로 추정하고 준비하였다.

조직위가 추정한 올림픽물동량은 일반화물 중 지참화물 1,453톤, 별송화물 420톤, 기타 화물 2,320 톤이었으며 특수화물은 말 250필, 요트 160척, 조정 85척, 사격기재 95대분, 카누 85척이었다.

소요장비는 추정물동량에 따라 트럭 연 838대 등 총 1,483대로 필요장비를 추정하였다.

수송장비는 대한통운(주)이 확보, 실제 확보장비로는 벤 타입 트럭 171대, 조정운반 트레일러 10대, 카누운반 트레일러 10대, 요트운반 트레일러 35대, 사격기재운반 트럭 15대, 마필 트럭 12대 등이었다.

8.3. 화물수송

□ 지참화물

수송운영단 화물수송담당관은 각 NOC의 국내도착예정 정보를 입수, 일자별·국가별 입국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송 추정물량과 장비 및 작업원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서에 의거하여 작업지시와 차량배차가 시행되었다.

대회기간 지참화물 727톤이 수송되었다.

□ 별송화물

각NOC로부터 화물반입정보를 입수하여 일자별·국가별 반입계획서를 작성하고 장비 및 작업원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공항 보세장치장에 직원이 파견되어 일반별송화물과 특수화물로 분류, 보세장치장과 타소장치장으로 운송, 통관수속을 마친 후 화물송장을 발행, 최종도착지까지 운송하였다.

대회기간 별송화물 반입량은 129톤이었다.

□ 마필 수송

승마경기용 마필 수송은 입·출국 수송과 경기일정에 따른 수송업무로 분리 운영되었다.

조직위는 경기용 마필의 감염방지 등 수송상의 특수성을 고려, 마필 수송차량을 특별히 제작 관리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기간 마필 수송업무는 입국 수송과 경기일정에 따라 서울 승마공원、원당종합마술경기장. 종합운동장간 수송으로 이어졌다.

마필 수송은 3,5톤 8대, 5.1톤 4대 등 12대의 특수차량을 풀제로 가동 240회 이상 운행, 마필 221필을 수송하였다.

20

22

20. 입국선수단의 화물을 대한통운㈜ 직원이 화물차에 옮겨싣고 있다.

21. 수송기에서 하역된 경기용 마필을 검역소로 운반하기 전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리사가 돌보고 있다.

22. 대한통운㈜이 화물수송업체로 지정되어 대화물자 수송을 전담하였다. 대한통운 벤타입트럭 171대가 동원되었다.

제27장 수송

입국수송

화물담당관은 경기용 마필을 실은 항공기의 도착사항을 확인하고 차량소독을 실시한 후 비행기 도착 1시간 전까지 공항 화물터미널에 대기시켰다가 항공기가 착륙하면 마필 하역작업을 시작하여 화물송장 작성 후 마필을 차에 실었다.

검역소별로 마필송장이 발행되어 김포검역소와 과천검역소에 수송되었으며 검역이 실시되었다.

경기장 수송

종합수송부 화물수송담당관은 승마경기본부 마필수송담당관으로부터 마필 수송요청을 받아 종합모터풀내 대한통운(주) 서울지사에 배차지시하고 경찰에 사이드카 호송을 요청, 출발 1시간 전까지 모든 차량 소독을 필하고 검역소에 도착 상차한 후 경찰 호송하에 서울승마공원까지 수송하는 절차에 따라 마필이 수송되었다.

1988년 9월 20일과 21일 지구력경기를 위하여 서울승마공원 마사에서 원당종합마술경기장까지의 경기용 마필 수송과 1988년 10월 2일 종합운동장까지의 수송에도 마필 수송차량 배차, 상차확인 후 마필수송담당관의 송장확인, 경찰 호송하에 수송, 도착과 함께 인계되었다가 역순으로 회송되는 절차를 밟아 수송이 완료되었다.

마필 수송차량 운행실적을 보면 9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8대가 운행되었는데 차종별로 보면 4.5톤 화물차 76대, 8톤 3대, 10톤 1대, 11톤 45대, 12톤 7대, 13톤 3대, 4.5톤 전세 7대, 4필용 전세 38대, 10필용 전세 68대가 운행되었다.

사격기재 수송

각국별로 선적정보 입수, 일자별、국가별 반입계획서 작성, 동 계획을 세관 및 관계경찰당국에 통보하고 장비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사격기재는 총포류로 통관 입고에 사전승인이 필요하였다.

사격기재 운송차량은 적재 후 봉인하고 출발 전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호송경찰관이 반드시 동승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아 무기고에 입고시키고 입출고 관리는 경찰이 담당하였다.
운송사격기재는 70대분으로 4.5톤 29대, 4.5톤 전세 1대, 8톤 전세 40대분이었다. 이들 사격기재는 대회가 끝난 후 재반출되었다.

해상반입 요트류 수송

반입정보 입수, 반입계획서 작성, 해당 선박회사로부터 일정확인, 선적서류를 접수하고 수송계획을 작성하였다.

통관준비、배차계획、인부배치계획 지시、타소장치장 허가를 신청하거나 확인하고 화물송장을 발행하는 절차를 거쳤다.

대회경기용 요트 수송에는 4.5톤 전세 41대와 30톤 화물차량 15대, 13톤 화물차량 10대, 10톤 4대, 11톤 2대, 4.5톤 1대 등 화물차량 73대가 운행되었다.

조정·카누 수송에는 총 127대가 수송에 동원되었는데 가장 많이 이용된 화물차가 4.5톤 차량으로 91대가 이용되었고, 다음이 30톤 대형트럭 10대, 4.5톤 전세 7대, 8톤 전세 및 5.3톤 전세 화물차가 각각 5대, 8、13、5、3톤차량이 각 2대씩, 10、11、12톤 차량이 1대씩 투입되어 수송에 이용되었다.

9. 관람객 수송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에서 관람객 수송인원을 290만명으로 추정, 서울특별시、교통부、치안본부와 협조체제를 갖추고 수송대책을 세웠다. 관람객 수송대책은 정부의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87년 11월 교통소통대책을 다룰 수송전문위원회 제 2소위원회를 내무·교통·서울시·시경·교통개발연구원 관계관으로 구성, 올림픽대회기간 문제점들을 협의 결정하였다.

1988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지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주관부서별 교통소통대책 방안을 재검토, 대책을 보완하였다.

조직위는 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시내 교통소통여건의 악화 ② 대중교통수단의 증가와 교통통제로 교통체증현상의 심화 ③ 올림픽 수송으로 교통난 가중 ④ 대규모 관광객 및 관람객으로 교통량 증대 ⑤ 중추절(1988년 9월 25일)의 대규모 성묘객 이동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올림픽기간 교통체증 등 문제점을 추출하고, 대책으로 주관부서별 교통소통대책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관람객 수송대책은 정확한 관중의 예상이동시간 및 이동량을 파악하여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수송력을 높이는 것으로, 수송력 제고는 수송수단인 차량의 증가와 소통을 원활히 하여 운행시간을 단축, 더 많은 수송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직위는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한 수송력 제고 및 교통소통대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9.1. 국내관람객 수송

□ 일반교통수단

일반관람객을 위하여 ① 버스노선을 조정 또는 연장운행하고 ② 전철 운행간격을 조정하여 지하철 수송능력을 증대함으로써 관람객 수송을 담당한다는 방침이었다.

버스노선 연장운행

대회기간 중 5개 경기장 47개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 1,137대를 연장운행하였다.

연장구역은 올림픽주경기장까지 20개 노선 580대가 연장운행되었고, 선수촌 → 올림픽공원 6개 노선 165대, 서울대공원 → 과천승마장 11개 노선 243대, 성남시 수진동 → 성남공설운동장 5개 노선 84대, 고덕단지 → 조정경기장 5개 노선 65대였다.

좌석버스 24개 노선 22대가 노선을 연장, 서울대학교체육관과 태릉경기장까지 운행되었다.

서울시는 구파발전철역 → 원당승마장, 경원대학교 → 상무체육관, 성내역 → 조정경기장, 성내역 → 올림픽공원까지 4개 노선 25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

심야경기에 대비하여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1시간 동안 버스운행시간을 연장하였고, 전세버스는 김포공항 → 도심지역 통과 → 올림픽공원 1개 노선 28대를 운행하였다.

지하철 증차운행

지하철 2호선의 운행간격을 6분에서 3내지 5분으로 단축운행함으로써 시간당 편도 10회 운행하던 것이 17회로 시간당 왕복 수송능력 4만 3000명이 7만 4000명으로 늘어났다.

1일 평균 수송인력은 253만명에서 303만명으로 증가되었다.

2、3호선은 심야경기 후 관중 수송에 지하철을 운행, 수송하였다.

2호선은 종합운동장역과 잠실역에 경기 종료 후 1시간 15회 연장운행하였다.

지하철 1회 증차시 2,150명을 수송할 수 있다.

3호선은 한양대학교·동국대학교 입구역에 경기 종료 후 1시간 2회 증회운행하였다.

심야 지하철 운행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시간은 밤 12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였다.

경기장 및 행사장 택시 고정배차

9개 경기장과 행사장 5개소, 10개 호텔에 택시를 고정배차, 올림픽패밀리가 택시를 편히 이용하도록 하였다.

올림픽주경기장에 50대, 올림픽공원、태릉경기장、화랑양궁장、로얄볼링장、한양대학교체육관、서울대학교체육관、동대문운동장、새마을체육관 등 8개 경기장에는 택시 20대를 고정배차하였다.

또한 선수촌에 60대、기자촌、MPC、IBC에 각 50대씩, 패밀리아파트에 40대 등 모두 250대의 택시를 고정배차하였다.

10개 호텔에도 5대에서 최고 20대까지 110대의 택시를 고정배차, 택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하였다.

공항에도 개인 2,000대, 법인 2,000대 등 택시 4,000대를 고정배차, 공항에서 도심경기장 연결수송을 담당하였다.

야간에는 공항에 택시 수범업체 차량 80대를 활용, 야간 교통량을 담당하였다.

□ 개·폐회식 수송

개·폐회식 수송인원을 17만명으로 측정, 서울시와 치안본부는 교통통제센터를 운영, 입체적인 관리를 시행하였다.

개·폐회식 관람객 수송대책으로는 버스정류장 조정, 관람객의 시차별 입장유도, 노선버스 연장운행으로 버스 수송능력 확대, 일반관람객 수송 셔틀버스의 운영 등이다.

개·폐회식 수송분담은 지하철이 60%인 10만 3000명, 시내버스 5만 2000명(30%), 택시 1만명(6%), 승용차 이용 7,000명(4%)으로 분담계획을 세웠다.

9.2. 올림픽패밀리 특별수송대책

대회기간중 올림픽패밀리에게 셔틀버스, 전용승용차 등 공식수송 이외에 지하철 및 서울시 운영 순환버스 등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수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버스

① 공항 - 도심 - 올림픽공원간을 1988년 8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급전세버스 28대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8 - 9분 간격으로 유료운행하였다.

운행노선은 김포공항 - 새마을체육관 - 가든호텔을 거쳐 시내 덕수궁과 명동을 돌아 본부호텔인 신라호텔을 경유 MPC - 올림픽주경기장 - 올림픽공원까지의 45.6km로 야간경기가 있는 날은 운행시간을 연장하였다.

② 성내역 - 올림픽공원 노선을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좌석버스 15대가 3분 간격으로 순환운행하였다.

③ 황산 - 미사리조정경기장 노선에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5분 간격으로 배차 운행하였다.

④ 과천승마경기장 - 사당역 노선에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5분 간격으로 배차 운행하였다.

⑤ 구파발역 - 원당종합마술경기장 노선에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람객을 수송하였다.

지하철

1988년 9월 10일부터 10월 3일까지 24일간 AD 카드 소지 올림픽패밀리는 무료이용토록 하였다.

택시공동배차

행사장.경기장.호텔에 총 600대의 택시를 공동지정 배차하고 공항은 택시의 의무운행제를 확대, 이전의 635대에서 1,968대로 확대실시, 외국관광객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23

24

25

23. 경기용 카누를 특수차량으로 수송하였다.

24. 공항·경기장·행사장·호텔에 택시를 고정배차하여 올림픽패밀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경기용기구 수송에 한국전기통신공사 차량도 동원되었다.

제27장 수송

9.3. 교통소통대책

대회기간 서울시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 검토되었다.

대회의 성패에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교통소통대책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의 교통관리대책과 이와는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기획된 교통량 감축방안으로 크게 나뉘어 추진되었다.

일반교통소통 및 중추절을 전후한 특별교통소통대책은 평시 교통체증 가중지역 운행노선 별도 검토, 중추절 교통체증대책 강구 측면에서 추진되었고, 교통량 감축방안은 조직위가 의견을 제시하여 정부지원 실무위원회를 통한 정부 차원에서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 추진경위

1987년 4월 13일과 동년 11월 17일 수송전문위원회는 1987년도 1, 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부·서울시·치안본부·서울시 경찰국 과장급 실무 책임자와 각 운수단체 등 18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올림픽대회 교통소통문제를 제기, 교통혼잡 예상지역에 대한 교통소통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1988 년 1월 8일, 유관기관회의를 갖고 ① 서울시경의 평소 혼잡예상지역과 중추절 전후 혼잡예상지역에 대한 교통통제계획 ② 경기도경의 중추절 전후 수원핸드볼경기장, 통일로사이클경기장 수송통제계획 ③ 서울시의 교통량 감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보완대책이 제시되어 협의가 진행되었다.

1988년 2월 19일 제 31차 정부지원 실무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방안이 결정되어, 동년 5월 제36차 정부지원 실무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였다.

□ 교통소통대책

일반교통소통대책으로 서울시내 7개 교통혼잡지역이 지정되고 지역별 주관부서가 결정되어, 교통통제계획과 홍보대책, 대체노선 확보계획이 수립되었다.

7개 교통혼잡지역은 노량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왕십리로, 을지로·동대문지역, 길동 4거리, 둔촌로터리였다. 중추절 특별교통소통대책은 시외지역과 시내지역으로 나누어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시외지역은 수원핸드볼경기장、통일로사이클경기장에 대한 중추절 교통대책이 검토되었으며, 시내지역은 26개 노선별 교통혼잡지역을 지정, 대체노선을 설정하고 교통대책을 수립하였다.

26개 혼잡지역은 11개 경기장과 심판진 숙소 5개 호텔에서 8개 경기장 노선, 보도진 수송노선 7노선 대체노선을 이용, 조기 출발한다는 방침이었다.

□ 교통량 감축대책

교통량 감축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었고, 정부지원 실무위원회가 결정한 방침에 따라 시행되었다.

총무처는 개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대회기간 공무원의 가을휴가를 3일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자율 근무시간제를 실시토록 하였다.

노동부는 경인지역 산업체 근로자에게 생산의 차질이 없는 한 윤번제 휴가를 실시토록 각 사업장에 권장하였으며, 문교부는 중.고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차장 및 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수업시간 조정 등을 허용하였다.

서울시는 자가용 합승제를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 권장하고 추석성묘를 앞당기도록 민간 차원에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교통부는 시민의 자율적 협조를 통한 자가용 격번제 운행을 실시,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교통소통대책은 조직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치안본부.서울시경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집행하였으며, 교통량 감축대책은 서울시·총무처·교통부·문화공보부 등이 업무를 분담, 세부계획을 수립 집행하였다.

그 결과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장이 없었다.

특히 자가용 격번제 운행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협조 아래 최저 91.5%, 최고 96.2%의 호응도를 보였다.

10. 회고와 평가

올림픽 수송은 대상인원의 활동장소별로 수송부가 설치되었고 선수단、보도진、귀빈·심판진으로 대상을 대별, 공항·항만에서부터 경기장、연습장、숙소、행사장별로 수송업무가 수행되었다.

수송수단은 셔틀버스가 대종을 차지하였으며, 전용차량과 예비차량이 배차 운영되어 수준높은 수송서비스라는 호평을 받았다.

조직위의 수송업무는 운전요원과 소요차량의 조기 확보 및 확보 운전원에 대한 반복교육으로 대회기간중 사고없이 임무수행이 가능하였으며, 10개 모터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수송이 가능하였다.

종합수송부는 단계별로 차량을 확보, 점검하고 모터풀별로 차량을 배치하는 등 조정업무를 무난히 수행, 전체 수송업무를 원활히 운영하였다.

본부호텔 수송부는 귀빈 인사들이 시내 30여개 호텔에 나누어 투숙함으로써 발생된 장소별 수송수요에 대비 하루 전 수요를 파악하여 집중배차하였다.

선수촌 수송부는 NOC전용차량 및 요구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고, 선수촌내에 최초의 셔틀버스를 운영, 각 NOC의 호평을 받았다.

보도진에 대한 수송서비스는 기자촌. MPC·IBC에 수송부와 모터풀이 설치, 각기 운영되었으나 경기장·연습장·행사장 수송에 역점을 둔 셔틀버스 운행으로 수요를 충족시켰다.

조직위는 화물수송 전문업체로 대한통운(주)을 지정하고 대한통운(주) 직원을 화물담당관으로 지정, 조직위 기구속에 흡수,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솔책임을 맡게 하여 책임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마필 수송과 사격기재, 요트, 조정·카누의 입·출국 수송에서 사고없이 성공적인 화물수송이 가능했던 것은 전문업체가 담당하였고 전문인이 책임있는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조직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올림픽 수송의 가장 큰 공로자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수행된 교통소통대책과 교통량 감축대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인하는 것이다.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 자가용 격번제 운행 등에 국민이 보여준 높은 참여율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서울올림픽이 남긴 또 하나의 기록으로 보존될 것이다.

26

27

26. 개회식 입장객을 위하여 대형버스가 동원되었으며 탄천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서 입장하도록 하였다.

27. 종합 모터풀에 대기중인 차량들